

유다서

Tape #C2638

By Chuck Smith

-----  
-----  
(유다서)

Shall we go to the general epistle of Jude? Jude introduces himself as...

이제 유다서를 함께 공부할까요?

A servant of Jesus Christ, and brother of James (1:1),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유1:1)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word servant in Greek is doulos, bond slave of Jesus Christ. But also adding this identification as brother of James, which leads to a very interesting speculation, which is in all probability correct. In Matthew’s gospel, chapter thirteen, when Jesus was attracting great multitudes, there were those that were offended because of Him. They said, “Hey, we know who this is! This is the son of Joseph, the carpenter! Aren’t his brothers still around here? James, and Simon, and Jude?” So he is named as the brother of James, but also would make him a stepbrother to Jesus. In Mark’s gospel also, James and Jude are named as brothers of Jesus.

그리스어로 ‘둘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형제’라고 신분을 밝힘으로 인해 확률적으로 정확성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추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무리의 관심을 끌었을 때 거기에는 그 전에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였으며 예수의 육신적인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It is a fallacy and invention of the Catholic Church that Mary remained a perpetual virgin. That's just one of the added benefits that they tacked on to Mary, the perpetual virginity of Mary. Not scriptural. In fact, we are told that Jesus' brothers really didn't believe in Him, and that's why He said,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country among those in his own household" (Matthew 13:57). Once when Jesus was ministering at Capernaum and the crowds were pressing and He really wasn't able to rest, almost twenty-four hours a day being compelled by the needs of the people, Mary and His brothers came down to rescue Him! They thought He'd flipped; the pressure of so many people had gotten to Him. So Mary and His brothers came to rescue Him from the crowd. Once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brothers became believers. James became one of the leaders of the church. James, the brother of John, exited from the church very early in its history. He was one of the church, after Stephen, he was the next martyr. Herod stretched forth his hand against the church, and he had James beheaded. When he saw that it pleased the Jews, he had Peter put in prison, intending to bring him forth the next day and execute him. But that night, as Peter was asleep, the angel came and woke him up and let him out of the prison. You know the story. So James, the brother of John, was beheaded very early in church history.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후에도 동정녀인 채로 지냈다는 것은 가톨릭에서 지어낸 것이며 일종의 허구입니다. 영구적인 동정녀 마리아라는 꼬리표를 마리아에게 덧붙임으로 가톨릭은 자신들의 유익을 하나 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의 공생애 사역을 순수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군중들이 몰려왔었고 그래서 주님은 휴식을 취하실 수 조차 없었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계속 그들과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군중에 떠밀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여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 하셨을 때, 형제들은 비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형의 이름도 야고보이지만 그는 교회 역사의 초기 때 이미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의 형 야고보는 스테반에 이어 순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손길을 뻗쳐 나갈 때 그는 요한의 형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그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바깥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는 교회 역사 초기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 입니다.

This other James became one of the leaders of the early church, and one of the spokesmen. When, in the fifteen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the question came up as far as the Gentiles' relationship to the law, the Gentile leaders in Christ, their relationship to the law. It was James who made the final proclamation that was accepted by the church and sent to the Gentile church in Antioch, encouraging them in their faith in Christ, and freeing them from the responsibility of obedience to the Mosaic Law.

또다른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요 설교자 중의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에서 말하는 이방인들과의 교제 문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의 교제 등에 관한 것이 논쟁거리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할 책임에 묶여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이방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So the identity, then, of Jude becomes very interesting: a servant, the bond slave of Jesus Christ, but a brother of James. He is writing to those who are first of all sanctified by God. The word sanctified means to be “set apart” for exclusive purposes. 본 서신의 저자인 유다의 신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노예이지만 동시에 그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Now, when in the Old Testament they built the tabernacle to worship God, they built the instruments that were to be used in the worship: the cup, the tables, and the plates and so forth, and they sanctified them. That is, they set them apart to be used exclusively in the worship of God, and therefore, were not to be used just in an ordinary sense. In other words, if you were thirsty, you weren't to grab one of these cups and get yourself a drink out of it. They were set aside

for the worship of God. It was to be used exclusively in the worship of God. So they were said to be sanctified unto God.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회막을 지었고 그들은 예배에 사용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컵, 탁자들, 그릇들, 접시 등등. 그리고 그들은 예배에 사용할 기구나 기명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구들을 평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들을 따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 컵들 가운데 하나를 물컵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So when we commit our life completely unto God, sanctified, what it means is that your life has been set apart for God's use and you're really not to use it for your own purposes. So...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지고 또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those that have been sanctified by God the Father, and preserved in Jesus Christ, [or kept in Jesus Christ,] and called: [A typical greeting] Mercy unto you, and peace, and love, be multiplied. [So rather than grace, mercy and peace, and love. Now he said] Beloved, when I gave all diligence to write unto you of the common salvation, it was needful for me to write unto you, and to exhort you that you should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delivered unto the saints (1:1-3).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Now, his original intention in writing to them was to just write to them concerning the common salvation that they had. But as he sat down to write to them about the common salvation, that which was upon his heart, the Holy Spirit changed the subject, and the Holy Spirit pressed upon him to write to them encouraging them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delivered to them.

So here's an interesting thing where the Holy Spirit superceded that which Jude was intending to write, the subject upon which he was intending to write. The Holy Spirit superceded and he writes to them concerning the necessity of holding on to the faith and to the truth that they had received. For again, the deceivers and the false prophets was a problem to the church. So "it was needful" or "it was impressed upon me to write unto you and to exhort you that you should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delivered unto the saints." 이 편지의 저자 유다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기록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앉았을 때, 성령께서 그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진지하게 투쟁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자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유다가 기록하려 했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 시키신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주장하사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의 절실함에 관한 주제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배역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For there are certain men who have crept in unawares, who were before of old ordained to this condemnation, ungodly men, turning the grace of our God into lasciviousness, and denying the only Lord God, and our Lord Jesus Christ (1:4).

계속하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1:4)

So into the church had come these men. Now the same thing is true today. There are men in the church, garbed in the robes of ministry, who deny our Lord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사역 안에 예복으로 차려 입고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I am appalled at what some so-called reverends have to say about the issues of the day, or about spiritual matters. I'm appalled when ministers sue President Reagan for declaring the Year of the Bible saying that, "That's unconstitutional. He has no right to do so!" Ministers sued him! Rather than rejoicing that a president is pointing the people to the right direction, for guidance for the nation. But they are the same kind that had crept into the early church. Hey, this has been the curse of the church from the beginning! Those who purport to speak for the Lord, or those who purport to be servants of Christ, planted really by Satan to undermine the faith of the simple people. 나는 소위 성직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날의 쟁점들과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의 해'를 제정했을 때, 성직자들이 "이것은 위법이다. 그에게는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국가를 지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내서를 제공하는 대통령을 기뻐하기는 커녕, 성직자들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초대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이런 악한 것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사단의 주도하에 순수한 성도들의 믿음을 손상시키기 위해 잠입했던 것입니다.

You see, Satan found that he could not destroy the church by a frontal, so he decided to destroy it from within, and he joined the church. The danger to the church today really doesn't lie from communism or outside forces. The danger in the church lies from within the corrupting leaven within the church. That's the real danger! That's the danger I fear. That corruption from within. Not the outside attacks of the enemy. That only makes the church stronger. But the church is weakened by these forces within. You think I'm bad, wait until we find out what he has to say about them! "They were ordained," he said, "to this condemnation, before ordained, before of old ordained to this condemnation. They are ungodly men who turned the grace of God into lasciviousness." "Well listen, God's grace will cover. It doesn't matter, God's grace, His undeserving favor is ours, and so we can do what we please. You know we can live like we want! It doesn't matter. God will forgive us. God's grace will cover it!" So they use it as a cloak to cover their own lascivious lives, and life's standards, and desires "Well, the grace of God will cover." Peter warned about those also who had twisted the words of Paul. "Unstable, unlearned persons wresting the scriptures to their own destruction, turning the grace of our God into

lasciviousness.” Paul spoke about them in Romans. He said, “Where grace” or “where sin abounds, grace does much more abound” or “grace overflows.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sin freely that grace may overflow? God forbid!” He talked about those who were in the church who were saying, “Hey, my rotten lifestyle is only proving God’s grace and love. I’m just a good example to people to how God can love such rotten persons! So it’s bringing glory to God; my evil vicious living brings glory to God because people say, ‘Look God forgives, and God loves even a person like that!’” They were saying, “Now how can God condemn me when my life is really bringing glory to Him?” Paul said, “whose damnation is just.” They denied the only Lord God, our Lord and our Lord Jesus Christ.

알고있는 바와 같이, 사단은 전면 공격으로는 교회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와 결합하여 그 안에서부터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위험은 사회주의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험성은 교회 내부의 부패한 누룩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위험인 것입니다. 적의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은 어느 면에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또한 바로 그 안의 세력으로 교회는 약해 집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다가 악한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4절에서 유다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허물을 덮을 거야. 그러니 상관없어. 그분의 넘치는 사랑은 우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린 하고 싶은 데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목사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릴 용서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모든 죄를 다 덮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치 큰 외투가 그들의 방탕한 삶과 그들의 욕구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덮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은혜가 있는 곳에, 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런 악취나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불결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나의 악하고 부도덕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야 저것 좀 봐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바울은 바로 그런 자들을 겨냥하여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고 말합니다.

I will therefore put you in remembrance, that though you once knew this (1:5),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It's interesting how we need to be, needed to be reminded often of the things we already know. Peter said, “Now I k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but I feel it is necessary to write them unto you and to bring you into constant remembrance of them. Knowing that I'm going to be leaving this tent; I'm gonna be moving out of my body pretty soon. I'm now going to write them to you so that even after I'm gone you might be reminded.” Certain things of which we need constant reminding. So Jude said much the same, “I'm going to put you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that you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자주 생각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고, 또 얼마나 이렇게 되길 원하는지 흥미롭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썼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또한 너무나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나 그래도 나는 네게 상기시키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how that the Lord, having saved the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afterward destroyed them that believed not (1:5). 5절 말씀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So God brought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bondage of Egypt. It was the intention of God, the desire of God, to bring them into the land that He had promised to their father Abraham. To bring them into a rich land that they could call their own, that they could possess as their own. No longer be slaves in a foreign country, but now to have your own land, and to possess your own land, build your own houses, plant your own vineyards, eat of the fruit of your own labor. God's intention to bring them into the land that was well-watere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이끄사 그들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외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땅을 소유하여 자기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스스로 수고한 것으로 열매 맺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려는 땅은 물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But they came into the wilderness, to the border of the new land, Kadesh-Barnea; and when the spies brought back a discouraging report, "Giants in the land! Huge cities with high walls, we can't go! We can't take it!" the people lost faith. They did not believe that God would keep His word and deliver the land to them.. Their lack of faith, their lack of entering in, kept them from all that God had for them. They said to Moses, "Why did you bring us out here to perish in the wilderness? If we try and go in there, they'll kill our kids and we'll be wiped out!" So God said, "Alright that's it. Moses, I will not allow them to go into the land now. But they will wander here in the wilderness for forty years until they all die off. And their children that they were worried about being slain, they will go in and take the land." Unbelief kept them from all that God had for them. God, in His love, was wanting to bless them, wanting to bring them into this land of promise.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땅의 국경지대 가데스 바네아 앞 광야에 들어섰을 때, 정탐군들은 실망스런 소식을 안고 돌아 왔습니다. "그 땅은 거인의 땅입니다. 높은 담들로 둘러싼 거대한 성입니다. 우린 갈수 없습니다. 우리로선 어렵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과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불신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데려 왔느냐? 만일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를 멸할 것이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그들을 이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될까봐 우려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불신은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축복하기 원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God in His love wants to bring you into a glorious life of fellowship and relationship with Him. Jesus said, “I ha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and that more abundantly!” The Lord wants to bring you into an abundant life! But unbelief will rob you of the things that God desires to do for you! It’s amazing how unbelief can rob you of the work of God and of the blessings of God!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영광스런 교제와 관계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불신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할 것입니다. 불신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앗아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In the Old Testament we have the story of the king who, Jehoram, it was the king in Samaria. The city of Samaria was being besieged by Benhadad in the Syrian forces. They had cut off the food supplies. They had encircled the city and they were starving the people out. They almost succeeded. The donkey’s skull was selling for sixty-five pieces of silver. People began to boil their own children and eat them. That’s how desperate they were! When the king decided that Elijah was at fault for this whole problem, and he said, “I’ll have the head of that fellow!” He ordered the guy to go down and behead him.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 성을 다스렸던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은 시리아(아람) 군대의 벤하닷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 음식 공급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갔습니다. 벤하닷의 군대는 거의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당나귀 머리뼈가 은 65개에 팔릴 정도로 비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끓여 먹기 시작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호람 왕은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선지자 엘리야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고 말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를 시켜 엘리야의 머리를 잘라 버리라고 보냈습니다. (\*\* 확인바람: 은 65개가 아니라 80세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Now Elisha was sitting in his house with his friends, and he had an extremely strong gift of discernment. He just knew what was going on. In fact, when Benhadad was having his secret meetings of war with his generals, Elisha was reporting to the king everything that Benhadad had planned! So the king was there to ambush every sortie that was sent against him, until Benhadad came to one of his generals and said, “Okay, one of you guys is a fink! I intend to find out which one! You know it’s impossible that that king could know all that we’re planning to do unless one of you guys were telling!” So the General said, “That’s not so. We’re, all of us, loyal to you, but there’s a guy over there in Israel and he knows what you tell your wife in the bedchamber. I mean, you can’t even talk to your wife without that guy knowing what you’re saying!” He had a very keen gift of discernment! 그때 엘리사는 친구들과 그의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통찰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벤하닷이 비밀리에 그의 장군들과 군사회의를 하면, 엘리사는 벤하닷이 계획한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벤하닷이 올 때 반격을 하였습니다. 벤하닷은 마음이 변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누가 사마리아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밝혀 내겠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계획을 누설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당신이 당신의 침실에서 당신의 아내에게 하는 말도 모두 압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이 모르게 당신 아내에게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판별력이 아닙니까.

So he was sitting with his friends, and he said, “Look what that son of a murderer is planning to do now! He’s sending a guy down here to get my head! Can you beat that?” He said, “When the guy knocks on the door, open the door hard and hold him fast. Pin him, for behold, his master is right behind him!” So the knock came on the door and the guy opened it and pinned the guy behind the door, and here came up king Jehoram and his head of state, and he said, “Ah, we’ve got you now. You’ve been troubling Israel!” Elisha said, “Come on, you’re the one that’s brought on the problems. You’re the one that’s introduced the worship of Baal and turned the people after these other gods, and it’s because of you that the problems have come! But,” he said, “tomorrow in the gate of the

city of Samaria, they'll be selling a bushel of fine flour for sixty-five cents.” 어쨌든, 엘리사가 친구들과 앉아 있다가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크소리가 문에서 들리고 한 사내가 문을 열고 그 문 뒤에 바짝 숨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나라의 지도자 여호람 왕의 명을 받아라. 너는 이제 잡힌 몸이다. 너는 이스라엘에 문제만 일으키는 자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야말로 이스라엘에 문제를 불러온 자가 아니냐. 너는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였고 또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다. 이 문제들은 모두 너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부대에 65센트에 팔리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the man on whom the king leaned said, “Oh crazy! If God would open up windows in heaven such a thing couldn't be!” He didn't believe the promise of God. Elisha said to him, “Fellow, you will see it, but you won't eat it.” That night God caused the Syrians to hear a noise that they interpreted as chariots of the king of Egypt, and they fled, leaving their camp and all of their supplies intact! 그 때 엘리사의 목을 치기 위해 왔던 왕의 군대 장관이 말하길,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시리아(아람) 군대에게 역사하셔서 애굽의 전차들이 달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 등 모든 보급품을 고스란히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In the morning, they opened the gates so that the people of Samaria could go out, (who had been starving to death, remember) to go out and to get all of the booty and all of the loot that was out there. The king said to this guy who had said the night before, “God would open up the windows in heaven,” and the prophet said, “You'll see it; you won't eat it.” He said, “You go down there and stand in the gate and keep order.” The people were so hungry they trampled this guy to death. He saw it, God provided it, but he didn't eat it. That's the price of unbelief. 아침이 되자, 기아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과 노획물들을 취하러 가려고 사마리아 성 문을 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어제 그 장관,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기로 내려가 그 성문을 잘 지켜 명령을 준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굶주려 죽게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성문이 열리자 그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을 밟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것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댓가였습니다.

Even when God keeps His word, you're not able to partake of it. Unbelief can hold you back from what God has given, what God desires to give, from the blessings of God. The children of Israel through unbelief, and we read in the Psalms,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through unbelief.” It holds back.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조차도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주신것과, 주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78편 4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 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Now you see our unbelief comes from looking at ourselves instead of looking at God. I look at the circumstances. I look at the situations and I say, “Oh, I don't see how that could be! Just can't be man! I've tried everything, there's no way!” I give my testimony of unbelief. I've looked at myself, I've looked at my resources, I've looked at my abilities, and I've concluded that there's no way. But you see, that's because I've looked at me instead of looking at God. Unbelief always comes from looking at myself and the situation in light of myself..

Faith always comes from looking at God! Turns away from the situation. Abraham considered not his own age, about a hundred years old, or yet the deadness of Sara's womb, about ninety years old. He staggered not at the promises of God through unbelief. But being strong in the faith he gave glory to God, believing that what God had promised He was able to perform.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터 오는 불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나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 보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 불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완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이건 하나님을 바라는 대신 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항상 자기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얻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된 자신의 나이와 구십 세나 된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강하게 서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바를 또한 이루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So the children of Israel, the first example of those who did not enter into God's full blessings because of unbelief.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첫번째 예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Second example... 두번째 예로,

The angels which kept not their first estate, but left their own habitation, he has reserved in everlasting chains under darkness unto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1:6).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The Bible indicates that perhaps as many as a third of the angels rebelled with Satan against the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of God. In the book of Revelation, “John saw the dragon being cast out of heaven with his tail he drew a third part of the stars,” and stars are often used in the scripture as a reference to the angels. We know that there are angels which did not keep their first estate. They are mentioned here. It was this co-mingling of angels with men before the flood that brought the flood upon the world.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went unto them, and their offspring were giants. Genetic manipulation before the flood. 성경은 많은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 사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권위를 대적하여 반역한 일을 예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보니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 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별들은 성경에서 천사로 언급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읽게되면,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과 천사들의 혼합된 존재들로 인하여 홍수 심판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후손들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홍수 전에 유전자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So these no doubt are the angels kept not their first estate that God has now in chains of darkness awaiting the Day of Judgment. Angels dwelt in the very presence of God. They were servants of God, messengers of God, doing and bidding His work. These glorious creatures, higher in creation order than man, unredeemed man; they will be lower than us in our redeemed state. In our glorified state we will be judging them. But in the natural state, "God made Jesus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for the suffering of death." You see, angels can't suffer death. But He made Jesus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for the suffering of death. We see Him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according to Hebrews. 이같이 자신들의 지위를 저버림으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거하는 존재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으며 전달자요,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광된 피조물들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존재들이지만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지위를 회복함으로 천사들은 우리보다 낮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죽음이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난을 위해 천사보다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존귀를 입으신 것을 봅니다.

These creatures of God, dwelling there in the presence of God, the glory of God, kept not their first estate, their first principles, and now are reserved in everlasting chains under darkness until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거하며 자기들의 첫째가는 지위를 저버린 하나님의 피조물, 즉 천사들은 심판의 날까지 어둠 가운데 영원한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Third example... 세 번째 예로,

Sodom and Gomorrah, cities about them in like manner, giving themselves over to fornication, and going after strange flesh, are set forth as an example, suffering the vengeance of eternal fire (1:7).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God sent fire and brimstone and destroyed the cities of the plains, Sodom and Gomorrah, and those cities of the plains. Cities that existed in this beautiful fervent valley that was well-watered. Tropical climate, great soil, produced food without any effort. You see, as cultures develop, the first thing is in the primitive cultures a person is usually capable of producing enough food to keep himself alive. With primitive tools, primitive cultures, and this is what you find in areas where you really don't have any cultural, any culture kind of a development. The reason why is that people can only, they have to work all day just to provide food. I mean that's basic if you, you've got to have food.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성들은 물이 좋고 아름다운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열대기후에 좋은 토양은 큰 수고 없이도 먹을 것을 내어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할 때 그 첫번째는 원시문화로써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항상 생산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떤 진보된 종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Now, it is not until the means of supplying food develop to the extent that one person can produce more food than what he needs for his own use. The surplus of agriculture is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ment of any kind of society, or social structure within a community. So you have a fellow who's busily engaged in providing his own food; he has to make his own tools. He has to make his own hoes, he has to make his own plows, and he has to, you know his whole effort is into providing the food for himself, for his family.

식량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한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 농산물(생산물)은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나 혹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 구조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몰두하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도구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쟁기도 필요하고 쟁기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장만하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Now as you begin to develop, here's a fellow who is especially skilled in making plows. So he starts making plows because others are able to produce more food than what they themselves need for their own personal use, and now they can trade their food for his plows. He's particularly adept at making plows, so he spends his time now making plows and he trades his plows for food, because they can now produce more than what they need for themselves. That's how your society develops is through an agricultural surplus. 좀더 발전을 시작하게 될 경우, 여기 쟁기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쟁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쟁기와 식량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서로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잉여 생산물에 따른 것입니다.

Now they were able to develop the agricultural surplus in this Jordan valley because it was so rich and verdant, so productive. You didn't have to work so hard to create enough food for your needs. So we are told in Ezekiel that, "In Sodom they had an abundance of bread, and idleness of time." Because it was such a productive area. So that really, natural advantage. I mean, you live in an area like that where you don't have to work so hard to provide the food for what you need, you can develop now a beneficial social structure. But instead, they used their idleness of time and just following after the flesh. Homosexuality became a very prominent thing, "strange flesh" he calls it here. It's homosexuality that really developed there in Sodom. Kinky sex you might say, "strange flesh". Using their idleness of time, the abundance of bread, bringing about the idleness of time, using it then for these corrupt purposes. They serve as an example as they suffered the destruction of the fire and brimstone sent by God. The eternal fire, the vengeance of eternal fire.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요르단 골짜기에서 잉여 농산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은 매우 식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우거지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 이상으로 식량을 마련하느라 지나치게 일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에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라는 뜻은 그 땅의 생산이 넘치게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정말 자연이 준 이익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만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노동할

필요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유익한 사회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들은 나태한 시간을 보냈고 육신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곳에 동성애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유다는 이것을 가르켜 '다른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은 동성애가 일반화된 곳이었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 역시 다른 색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그들의 나태한 삶, 넘치는 풍요는 더 게으른 삶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풍요는 또한 부패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하는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천벌이었습니다.

And in the same way these filthy dreamers [That is the apostate teachers] they defile the flesh, they despise dominion [or authority] and they speak evil of dignities. Yet Michael the archangel, when contending with the devil he disputed about the body of Moses, and dared not to bring against him a railing accusation, but said, The Lord rebuke thee (1:8-9).

이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Now here is an interesting insight that the Bible doesn't give us anyplace but right here. And that is, we are told in the Old Testament that the Lord buried Moses. Moses went off from the camp and God buried him. They never found his grave; they never found his body. The Lord buried him. He died somewhere in the area of Moab, Mount Nebo, able to look over and see the land that God promised, not able to go over. “And the Lord buried Moses.” Well, Michael was the instrument, no doubt, that God sent to bury him. God said, “Michael, go down and bury him.” Satan met him there and began to dispute with him over the body of Moses!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시체(시신)에 관하여 이곳 외에 성경의 어디에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곳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장막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를 묻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찾지 못했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느보산의 모압 땅 어딘가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천사 미가엘은 모세를 묻으러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미가엘 땅으로 내려가 그를 묻어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거기서

미가엘을 만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탄과 마귀를 혼용하고 있음. 확인바람)

Now, Michael didn't even make a railing accusation against the devil. He didn't say, "Oh you dirty scum! You can't have him!" or whatever. He didn't make any railing accusation against him, he just said, "The Lord rebuke thee." 미가엘은 마귀를 대항해서 어떤 비난이나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를 향해 "이 더러운 쓰레기야. 그렇게는 안될걸" 혹은 그 어떤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I am a little wary about these people who are always railing on the devil. I'll personally tell you, I don't want any confrontation with the devil! In fact I always want the Lord between me and the devil. I don't want any personal confrontation with him; I want the Lord between us. In dealing with him, I want to deal with him only through the Lord, "The Lord rebuke thee." I wouldn't say, "I rebuke thee Satan!" Who am I to rebuke him? He'd say, "Who are you? Jesus I know, and Paul I know, but who are you?" But, "The Lord rebuke thee." Yeah that's all right, I can handle that. Get the Lord between him and me! That I can handle. 나는 항상 마귀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마귀와 어떤 대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사탄 사이에 계시길 원합니다. 혹시 마귀를 다루어야 한다면, 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그를 다루길 원합니다. "내가 마귀를 책망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귀를 꾸짖는 나는 누구입니까. 아마 마귀가 그럴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와 마귀 사이에 있으시다면 내가 마귀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So even Michael, hey, one of the greatest angels in heaven didn't make railing accusations against Satan, but said, "The Lord rebukes thee." But these filthy dreamers, these false teachers that were perverting the truth within the truth. They were speaking evil of the dignity; they were speaking evil of the church leadership, of the apostles. How many times they would come in and run Paul down! "Ah, he's not a real apostle! Paul's a renegade, Paul's a..." And here he was anointed of God and doing such a great work, and these false teachers, though, they always try to improve their stock by running down someone that

God is using. You know, it makes them look better if they can find flaws in someone, so people take pot shots at Billy Graham, you see. If I can find fault in Billy Graham, hey, I'm able to judge him! If he would only do this, and that, and the other, then he can be a successful... You know it's, but people do that, they try to raise. Well, someone said, "You'll never gain ground by throwing mud." But yet that seems to be the philosophy of many people. They try to increase their stock by tearing down someone else. 천국의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향해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추악한 꿈쟁이들, 거짓 선생들이 진실을 왜곡 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가치를 얘기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에게까지 마귀에 대해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와서 바울을 지치게 했는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변절자다", 바울은,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이며 참으로 훌륭한 사역들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자신들의 웃음거리를 개선해 보겠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제가 빌리 그레함에게서 어떤 잘못을 발견했다면, "나는 그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레함 목사가 이것만 한다면, 혹은 저것만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 그러면 그가 성공할 수 있을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몰아붙이려고만 합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철학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그들의 비웃음거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They speak evil of things that they don't even know about (1:10):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 도다"

This is so true and it's crazy, but there are people who have spoken evil of the work that God is doing here, and they don't even know about it! They've never been here! I'm amazed at some of the articles I've read in some of the magazines and papers and so forth about things that are supposedly happening here at Calvary Chapel. In the days when the hippies were around, you know, someone with great authority said I was at one of those houses and the kids climbing up

nude in the trees to read their Bible, smoking a joint. Crazy stuff! “They speak evil of things they don’t even know about!” Have never bothered to examine!

이것은 참으로 무분별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사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번도 이곳 갈보리채플에 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잡지와 신문 등에서 이곳 갈보리채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히피들이 이 주변에 많았을 때, 권위있다고 하는 어떤 자가 “자기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중 하나인데, 어린 것들이 벌거벗은 채로 나무에 올라가 성경을 읽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악한 일이라고 지껄입니다.

but one thing they do know naturally, as brute beasts, [I mean, you have a certain innate natural knowledge.] they even corrupt that. Woe to them! for they’ve gone the way of Cain, [The way of hatred, the way of bitterness, the way of the works of the flesh, rather than relying upon the work of God.] they’ve run greedily after the error of Balaam, [Filled with greed they looked to better their own position using the things of God, or their knowledge of the things of God.] they perished in the gainsaying of Core (1:10-11).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타고난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화 있을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이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멸망의 길, 패역의 길, 그리고 육신을 좇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 보다 탐욕으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As Core came to Moses and said, “You’ve taken too much upon yourself. Put in Aaron, your brother, in the position of going in before the Lord. We’re Levites, we have as much right as Aaron.” He perished when the ground opened up and swallowed him. 고라는 모세에게 와서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라며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자기도 레위 자손으로 아론처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만 땅이 열리고 대지가 그를 빨아들여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Now here's what He has to say about these false teachers and apostles, apostate teachers: 여기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 그리고 배교한 선생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쓰여 있습니다.

They are spots in your feast of love, when they feast with you, they are feeding themselves without fear: they are clouds without water, carried about with the winds; they are trees whose fruit withers, without fruit, twice dead, plucked up by the roots (1:12);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Now rain, of course, was always a welcome thing in that land. It's a desert area. The clouds form and you have the promise, “Oh, it's gonna be great we're gonna get some rain!” You know, they give great swelling words of promise, “We're gonna do this, we're gonna do that.” But there's no substance, no rain, clouds without water. They're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They are fruit that withers, it doesn't really come to maturity; it doesn't really develop fully. Again, it gives the promise, “Oh, there's a blossom.” I've got an apricot tree, the rottenest tree. I swear I'm gonna cut it down! In the springtime, it blossoms out. It even sets some little apricots, but they always fall off, never develop. Every year, I think “Oh, this year!” I told the tree, I said, “Look, if you give me one apricot, I'll let you live.” That tree's got to go! It gives the promise, but it never produces. Apostate teachers, they give all kinds of promises; they never produce. The fruit withers, it dries up. 비는 언제나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는 환영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막지대 이니까요. 구름이 드리우면 우린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비가 오겠군. 큰 비가 내릴거야”라고 말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런 표현은 부풀린 말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것을 할 계획이고 또 그것을 하게 될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없고, 비도 없으며, 그저 물기 없는 구름 뿐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비없는 바람만 몰고 다닙니다. 그들은 시들은 과일이고 성숙해지지도 않으며 전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와우, 꽃이 만발했네”식의 과장된 약속 뿐입니다. 나는 살구나무를 한그루 가지고 있는데 실은 죽은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이걸 꼭 잘라 버리고 말테야”라고 나는 다짐합니다. 봄이 되어 꽃들이 사라지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살구들이 생겨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매년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나는 살구나무에게도 말을 합니다. “네가 혹시 살구를 하나만이라도 내게 얻게 한다면 내가 살려두지” 하지만 그 나무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일말 기대를 하지만 결코 수확이 없습니다. 배교한 선생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약속은 하지만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없는 과일은 바싹 말라 버립니다.

They are like raging waves of the sea, foaming out their own shame; [Just driven, no real purpose, just raging waves foaming.] wandering stars, to whom is reserved the blackness of darkness for ever (1:13).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Now Gehenna is described as the place of the eternal abode of Satan and his followers. Jesus described Gehenna as existing in outer darkness. Our scientists have discovered galaxies that they estimate to be some twelve billion light years from the earth. But they, at the present time, believe that that is the edge of the universe. They do believe that they have discovered the edge of the universe some twelve billion light years away. They just recently funded for a new microscope. I mean, not a new microscope, a new telescope that will probe the heavens: seventy million dollars. It'll be set up in Hawaii. They are hoping to maybe catch the light of galaxies that are so far away that it has not yet reached the earth. 게헤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히 가두어 놓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헤나를 바깥 어둠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은하계는 지구로부터 약 12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으로 추정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은하계가 우주의 끝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진 끝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새로운 현미경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는데 현미경이 아니라 천공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될 새로운 망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려 약7000만불 정도의 가격으로, 그 망원경은 하와이에 설치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지구에 아직 도달하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은하계의 빛들을 찾아 내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Now, out beyond the furthest galaxy, say twelve billion light years away for the sake of argument, what if you continued out beyond that galaxy for another, say, a hundred billion light years distance? Because it would seem to me that space would be impudent, I mean, I can't imagine a sign out there, "This is the end of space." So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beyond the furthest galaxy, say, another hundred billion light years. But they wouldn't really be light years, because light wouldn't get out that far yet. You'd be in total darkness. Have you ever been in total darkness? I mean totally darkness. Down in the Oregon caves, you're way down there in the caves and then they turn off the lights and they say, "You can now experience total darkness." It's so dark you can feel it. A total darkness you feel. It says that there was a darkness in Egypt that they could feel. You can actually feel total darkness. I mean it's an awesome sensation to be in total darkness. It's something that's very rare. But to get out that far into the universe, you would get out into total darkness. What a fitting place for God to put the people who hate the light! Jesus said, "They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y hate the light." Outer darkness, to whom is reserved the blackness of darkness forever.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가 120억 광년이라고 논의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은하계 너머 다른 곳으로 계속하여 더 나아간다면 1000억 광년 떨어진 거리일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가르켜 '우주의 끝'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상상이 안됩니다. 제일 먼 거리 그 너머의 은하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말해 천억 광년 떨어진 곳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광년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광년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흑암 가운데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완벽한 어둠만 있는 곳 말입니다. 오레곤의 동굴들 밑으로 내려가서 불을 다 끊다면 "이제 암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 입니다. 정말 깜깜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굽에 임한 어둠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느끼겠지요. 여러분은 실제로 암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흑 가운데에는 두려운 느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둠은 사실 경험하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멀리 벗어나보면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절한 곳을 예비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빛을 싫어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흑암이 예비된 자들은 바깥 어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And Enoch also, the seventh from Adam, prophesied of these, saying, Behold, the Lord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saints (1:14),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Now this reference to Enoch prophesying, “Behold, the Lord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saints,” is found in the book of Enoch, which is known as an apocryphal book. An apocryphal book is a book whose authorship is questioned and has not been brought in and accepted as a part of the canon of scripture. There are doubts as to its authenticity, or its inspiration. The book of Enoch, the apocryphal book of Enoch, is such. 여기 14절에는 에녹이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외경으로 알려진 에녹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외경은 원작자가 확실치 않고 출처가 알려지지 않아 그 신빙성이나 영감에 있어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집니다. 에녹서인 에녹 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ow Jude, no doubt, was aware of this statement of Enoch from somewhere. The book of Enoch does have the statement in it, but the book of Enoch that we have, the apocryphal book of Enoch, didn't show up until about the second century. So whoever wrote that book of Enoch could have known that Jude made reference to it, and so included it in the book of Enoch so that it looked like it was a very authentic book. But that book of Enoch, the apocryphal book, did not turn up until the second century. It was not, of course, one of the books that was copied by the Hebrew scholars that wanted to put the scriptures in the Greek language, the Septuagint, so that the Jews of Jesus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or read them for themselves. 유다는 의심 없이 어딘가에 에녹의 진술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에녹서에 그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경으로서의 에녹서는 대략 2세기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에녹서의 저자가 누구였던간에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한 것은 알려진 바입니다. 물론 이 책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는 자기들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70인역, 즉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갖고 싶어 했던 히브리 학자들 의해 복사된 책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So he does make reference to this prophecy of Enoch. So Enoch was a prophet. He was a man that we know walked with God, was not, for God took him. But before God took him,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a rewarder of those that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So, he was a man who was rapture before his time. He experienced the rapture several thousand years before Christ. Actually, he was raptured before the flood! He was the tenth from Adam, tenth generation from Adam. Or seventh was it? Seventh from Adam. Seventh generation from Adam. So Enoch testified that the Lord was going to come with ten thousand of His saints. 유다는 에녹의 이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써 자기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그리스도가 오시기 몇 천년 전에 들림받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홍수 심판 전에 들림 받았습니니다. 그는 아담의 7대 후손이었습니다. 에녹이 증거하기를 주님이 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Now when Jesus comes, we're gonna be coming with Him.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w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In the nineteenth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as Jesus mounts the white horse to come back to the earth, "and the armies that came with Him riding on white horses," the church returning with Christ in power and glor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upon the earth. So Enoch prophesied of these things, "Behold the Lord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saint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Now in the prophecy of Isaiah, chapter sixty-one,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one that Jesus read in the synagogue in Nazareth, the prophecy of Isaiah said, “To execute judgment, to proclaim the day of the Lord.” Jesus did not read this portion of the prophecy, but He closed the scroll of Isaiah before He got to this portion. Because His first coming was not to include the judgment; that’s to be in the second coming and in Matthew’s gospel, twenty-four, twenty-five, when he talks to them about His second coming, “then when He comes, He will gather together the nations for judgment and He will separate them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관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예언은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것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때 예언서의 이 부분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번째 오심은 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에는 심판이 포함돼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것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Behold, the Lord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saint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and to convince all that are ungodly among them of all their ungodly deeds which they have ungodly committed, and of all of their hard speeche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1:14-15). 계속하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The day of judgment is coming. 심판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These are murmurers, complainers, walking after their own lusts; and their mouths speak great swelling words, having persons in admiration because of advantage (1:16).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So these are the typical politicians! Having persons in admiration because of advantage. The politicking of man. 이것은 정치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사람들을 얻는 것, 바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But beloved, remember ye the words which were spoken before by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How that they told you that there would be mockers in the last times, who would walk after their ungodly lusts (1:17-18). 계속하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This is probably a reference to Peter. In Peter’s epistle he said,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서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신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것이라 했습니다.

These are they who separate themselves, they are sensual, they do not have the Spirit. But you, [in contrast], beloved, building up yourselves on your most holy faith (1:19-20),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Our faith should be increasing. Our faith should be growing. The longer you walk with the Lord, the greater your faith should be.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ans 10:17). What advantage of coming out on Sunday night? Your faith is growing, because you’re learning about God. Because we’re doing nothing but just going through the Word of God. Even as we go through it and read it, what we read is gonna be an advantage and benefit to you, though what I may say may never make any impression at all. Just the reading and the hearing of the Word is gonna build your faith! Because you’re gonna begin to understand more and more about God, and the more you understand Him, the more you’ll trust Him and learn to trust Him. Building up yourself in a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Spirit. Asking the Holy Spirit to direct your prayer, in cases, groaning in the Spirit because of situations, or in other cases, if you have the gift, praying in an unknown tongue. 우리의 믿음은 점점 증가되어야 하고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지속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성경공부시간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점과 유익을 주겠지만, 전혀 어떠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더욱 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되면서, 또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물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성령 안에서 신음하게 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주신 은사를 따라 알아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1:21),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That's the important thing! You see, God loves you and because He loves you, He wants to bless you. He wants to bestow His goodness upon your life. But is able, it is possible for you to get out of the place of God's blessing. As the children of Israel, who through unbelief, did not enter into the full blessings that God had intended for them. So you can keep yourselves from the full blessings that God wants to bestow upon you because of His love. Even as the angels, which kept not their first estate, lifted up with pride, rebelled against God, so you, through pride and rebellion against God, can put yourself outside the place of God's blessings upon your life. God won't do for you those things He desires to do in His love for you.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나아갈 때에야 가능합니다. 불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찬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분에게 부워 주기 원하는 충분한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로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내어 쫓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So as though the Sodom and Gomorrah, who used their idleness of time in the pursuit of their own lusts, so you, giving yourself over in this day of idleness of time, an abundance of opportunities of going after your own lustful desires. If you use the idleness of time, and the pursuit of the lust of your flesh, you're gonna move yourself away from the place of God's love and God's blessing. That is, God can't do for you. It doesn't cause, God says, "Well, I don't love him anymore. Look at the way he's living!" No! No, God still loves you, but He weeps. He can't do for you what He wants to do, because your life is inconsistent with Him. Like Cain, if you allow hatred to fill your heart, God can't bless you. Like Balaam, if you allow greed to fill your heart, God can't bless you. Like Core, if you allow jealousy to master your life, God can't bless you, can't do for you what He wants to do. Keep yourself in the love of God, keep yourself in that place where God can do all He is wanting to do for you because of His infinite love. 자신들의 욕신을 좇아 나태한 삶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삶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려는 욕적 욕구를 좇는 풍족함의 기회나 나태한 삶에 자신을 맡겨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태한 삶을 살거나 욕신을 좇아 행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자리에서부터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저 사는 꼴을 좀 보라"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다고 해서 그 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발람처럼, 여러분이 탐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넣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고라처럼 여러분의 삶을 질투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위해 해 주기 원하는 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거하셔야 합니다.

As we look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unto eternal life. Looking for the Lord to come again at any time. Looking for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realizing that this could happen tonight! All of these things in the material realm that we've been working on, building up and so forth, poof, they're gonna burn! Then the only thing of value you're going to possess are the spiritual things. The whole material gain will all be gon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를 바라고, 오늘 밤에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 하십시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업적들과 이루어 왔던 모든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은 순식간에 흑하고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가치있는 것, 곧 영적인 일들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Some of you who may be materially very rich could be spiritual poppers. So you're rich for a few years and you're a popper for eternity. Oh yeah, you'll be in the kingdom, but barely.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pray that we might have an abundant interest in the kingdom of God. You say, "Oh, I thought salvation wasn't my works!" Of course it isn't. You can't work to receive a gift! Salvation is a gift, but w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our works and our place in eternity will be determined by our works. Not salvation, that's a gift of God. But there will be positions within the kingdom, ranks within the kingdom, determined by our faithfulness and our stewardship now.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unto eternal life!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매우 부자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빈약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동안 여러분은 부자일 수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흑하고 사라질 것처럼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도 천국에 있게 될 것이지만 거의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풍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은 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수고한 성과들로 영원히 있을 처소를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위가 있을 것이고, 서열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충실함과 책임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영생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하심을 간구하십시오.

Several years ago a fellow came up to me in the church, said, “Chuck, I want you to have a new car.” I laughed! I said, “I never buy a new car! Too much depreciation of it, someone else take the loss.” He said, “I own a dealership here in Orange County, and I want you to come over and pick out the car you want, and I’m gonna take the depreciation off the price.” He said, “I’ll give it to you at my cost, and you can pick all the options that you want; I’ll put them on.” So I went over to the dealership and I picked out my dream car! All the options that General Motors offered, the color I wanted. They sent the order into Detroit, and they manufactured the car and then he called me up and said, “Your car is here.” So I went over to pick it up. Turned in my old used car, drove out of the dealership with this brand new car. First time I’d ever had a brand new car and the smell was all mine. Belonged to me, you know, that special new car smell!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교회에 있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새 차를 구입하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제가 웃으면서, “나는 새 차는 사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자 그가 대답하길,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에 내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원하는 걸 고르시기만 하면, 그 견적은 아주 낮게 정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새 차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택사양은 고르시기만 하면 제가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에 가서 내가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골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인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구매서를 디트로이트에 보내서 그 사양대로 자동차를 만든 후 제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러 갔고, 내 오래된 중고차는 내어주고 새 자동차를 끌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새 차를 가져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 자동차의 냄새마저도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니...” 새 자동차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As I drove out of the dealership I knew that everybody was watching me. Admiring that car! You know as I drove down the street I could see people’s heads, at least I thought I did, turn and look at that fancy car. Oh man it was nice to drive! All the way home I was praising the Lord, worship the Lord, “You’re so good. Wow! Lord! You’re, ah this is outrageous Lord! I love it! So good to me, I love you Lord!” 새 차를 운전하고 나올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자동차를 부러워 하는거죠. 거리를 지나 시내를 운전할 때, 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차를 돌아보고, 또 바라보고... “와우,이거 운전도 잘 되는 걸..”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분께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와우, 하나님 당신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제 마음에 쏘옥 드는 자동차입니다. 정말 제게 너무나 근사합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My wife had said, “Honey, would you pick up some milk on your way home?” So I went to Alpha Beta. While I was in the store wheeling the cart around the store getting the few things my wife wanted, just praising the Lord. Cause I knew as I got out of that car in the parking lot everyone was just, you know, looking at that thing. Man was I enamored by it! “Oh Lord, you’re so good. I love you so much! Oh my Lord, this is glorious!” Got to the check stand, checked out, came out to the car and there in the driver’s side, my door some stupid, inconsiderate nincompoop had opened up their car door carelessly, recklessly, put a ding, a dent! I hadn’t even gotted Cause I knew as I got out of that car in the parking lot everyone was just, you know, looking at that thing n home yet! I was so mad! I quickly tried to see if there was any paint sample there, play detective, see if I can get the color of the car. Maybe it’s still here in the parking lot and I can pound on somebody! Boy was I upset! All the way home from the store I was just miserable! “Rotten people, rotten world! I hate, hate, hate people!” Inconsiderate! Boy, you’re glad, you can be glad I’m not God; I’d have sent half the world to hell in a moment! 제 아내가, “여보 오는 길에 혹시 우유 좀 사다 주실래요?”라고 부탁하여 저는 알파베타라는 상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사기위해 손수레를 가지고 상점을 돌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차장에 내 새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 자동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와,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계산한 후 다시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주 생각없고 바보같은 어떤 멍청이가 자기 자동차 문을 조심하지 않고 무모하게 다루었는지 내 새 차가 움푹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단서가 될만한 페인트 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그게 있으면 경찰한테 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만일 계속 그 주차장에 있었다라면 누구라도 흠씬 두들겨 주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상점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나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썩어빠진 세상, 썩어빠진 인간들 같으니라구... 너무나 싫다.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없이 굴 수가 있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Took the groceries into the house, my son Chuck Junior was there. Said, “Hey, Dad, you get your new car?” I said, “Yeah.” “Oh I want to see it!” I said, “Sure.” So I went out and it was a convertible, and he put the top up and down he, you know, did all the push button things, windows, seats, the whole ten yards. Then as he was standing back and looking at it, he said, “Oh, Dad, what’s that?” I said, “Would you believe while I was in the market some stupid dirty, rotten...” I started to get into my little thing again. Chuck said to me, “Hey, Dad, it’s all gonna burn.” I said, “Thank you son, I needed that!” I had lost perspective! You know, the shininess of the new car, the luxury points and all; I’d lost the perspective. I forgot that this whole thing was gonna burn! Hey, the thing did burn I guess on the highway. I got a thing from the DMV the other day wanting to know if I knew anything about that car. I said, “Hey, I sold that car years ago.” “Well it’s been abandoned on the highway; the engine’s blown up.”. It’s all gonna burn! I could hear the Lord in a sense saying to me when I was on my way home from the market, “Where’s all the joy and the glory and the blessing and the love that you were talking about a few moments ago?” All dissipated over one little ding. From “Oh Lord, you’re so good! I love You so much,” to “God, I hate people!” One little ding!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as we look for the return of the Lord, hey, it keeps your perspective. It’s all the material world, it’ll burn. Seeing then that all these things: pulpit, mike, stereos, television, buildings. Seeing that all these things are gonna be dissolved, what matter of persons are you to be? Spiritual! 집 차고에 들어 섰을 때 아들 척 주니어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새차를 구입하셨네요?” “어, 그래”와~ 자동차 좀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렴”. 그렇게 대답하고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동차는 접혔다 폼다 할 수 있는 접이식 지붕이라 제 아들은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버튼이란 버튼은 다 눌러 보았습니다. 창문, 의자, 그 밖에 모든 것을 말이죠. 나중에 뒤에 서서 그것을 보더니, “아니,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하고 물었습니다. “얘,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상점에 갔는데 어디서 바보같고 썩어 빠진...” 나는 내 사정을 늘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이것들은 다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그걸 깨닫는 게 내게 필요했단다”나는 균형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차의 빛나는 광택과 중후한 멋들, 그 모든

것에 나는 정신이 팔려 균형을 잃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아마 고속도로에서 타 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날 나는 도로교통국으로부터 바로 그 자동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는 몇 년전에 내가 팔았던 차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버려져 있었는데 엔진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상점에서 집에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몇 분전까지 고백하던 그 사랑과 축복과 영광과 기쁨은 다 어디로 갔지?”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흠자국 하나에 모든 것이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하는 감탄에서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이 흠자국 좀 보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랄 때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모두 타 없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예를들어 강대상, 마이크, 녹음시설, 텔레비전, 이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녹아질 것입니다. 육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Now on some have compassion, making a difference: And others save with fear, pulling them out of the fire; hating even the garment spotted by the flesh (1:22-23). 계속하여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 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

You can't witness to everybody alike. I mean this pattern witness, or this little can witness, it is not really good. People are different, people are different temperaments. Some you've got to scare the hell out of them. Others are drawn by love. Some with compassion making a difference, others, by fear, pulling them out of the fire. I mean, what's that mean? Now, it means that we have got to be led by the Spirit as we deal with people, hating even the garment that has been spotted by the flesh, pull them out of the fire. But hate the garment spotted by the flesh.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획일적이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질도 각기 다르죠.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은 진지하고 강하게 접근해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쉽게 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더럽혀진 옷이 싫더라도 그 상황에서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생활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은 미워해야 합니다.

The close of the epistle is with a benediction, a beautiful benediction, one that is used quite often within the church. 이 서신의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도로써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1:24)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Hey, that's exactly how the Lord's gonna present me,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That's how He's gonna present you!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that are in Christ Jesus” (Romans 8:1). Jesus bore the sins of the world. Every sin you have ever or will ever commit, Jesus died for, all covered by the blood. 어떻게 주님이 내게 나타나실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실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Now we don't take the grace of God and use it as a cloak for lasciviousness. He who does evil, doesn't really know God. But thank God for those who believe and are trusting in Jesus Christ and seeking to walk. We may stumble, we may fall, but He's gonna present us faultless when He presents us to the Father.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방탕을 위한 구실로 사용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질지라도 그 분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실 때 우리를 흠없이 하실 것입니다.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To the only wise God our Saviour, [Reference to Jesus Christ] be glory and majesty, dominion and power, both now and for ever. Amen (1:24-25). 이제 유다서의 마지막 구절인 24절과 25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찌어다 아멘”

When the Lamb takes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who sits upon the throne there in glory, the angels will declare, “Worthy is the Lamb to receive dominion and glory and might and power!” “To the only wise God our Savior, be glory and majesty, dominion and power, both now and forever. Amen.”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양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때 천사들이 소리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아멘 ” 하며 찬송했습니다.

Next week we start the exciting book of Revelation, an overview of the book. Now, may you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ves. May you go forth and practice the injunctions. Basically they are, walk in truth, and the truth is, we are to love one another. So may God’s love just dwell in your hearts richly through faith. May you walk in love and increase in love, and increase in y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s love for you. May you keep yourself in the love of God so that this week God can do all the wonderful things He wants to do for you, just because He loves you so much. May you experience the touch of God’s love in a new and special way, in Jesus’ name! 다음 주 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고, 오직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앞으로 나아 가십시오. 요컨대, 진리 가운데 행하되, 진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에 풍성하게 넘치게 거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기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고 특별하게 경험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